

2026
01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신명기]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엔학고래의 은혜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성경은 “여호와와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셔서” 그런 역사가 가능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그곳을 라맛 레히(턱뼈의 언덕)이라고 부르면서, 2행시까지 지어서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꾸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삼손은 탈진될 정도로 지치고 목말랐지만, 주변에서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깨는 즉효약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는 비로소 무릎 꿇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를 배우는 때입니다. 기도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삼손의 절박하고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셔서,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샘물이 터지게 해주셨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마시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합니다. 감격한 그는 그 샘은 엔학고래(부르짖는 자의 샘)라고 명명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다음 절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기록합니다. 악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삼손은 사사로 인정받기 시작하게 아닐까요.

라맛 레히에만 머무르는 사람은 “내가 해냈다, 난 정말 대단해.” 하면서 자기 과시의 기념비 세우기에 바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라맛 레히를 지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엔학고래의 차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터뜨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냈다! 난 정말 대단해”하던 라맛 레히에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려 주십시오.”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엔학고래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해냈다. 할 수 있다.”라는 라맛 레히의 교만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도와 달라는 엔학고래의 눈물. 그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절박한 기도의 진정성이 하나님 마음을 터치하면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고,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런 기적의 돌파구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2026
01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신명기]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2026.
01

SAEROUN

주일	월	화	수
28	29	30	31 송구영신 예배
4	5	6 3 커피브레이크 화요일저녁반 개강	7 4
11 • 새가족 131기 1주차 • CES 멘티 수료식	12	13 1/13-2/28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14
18	19	20	21
25	26	27	28

QT

목	금	토
1 신정	2 1 1/2-10 신년새벽기도회	3 2
8 5	9 6 1/9-11 YEM 겨울수련회	10 7
15	16	17 12 DEC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2	23	24 CES 멘토스쿨 개강 SBSB 개강 1/23-25 중등부 겨울수련회
29	30	31 2 FEB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026. 01

1	목	[신정]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 43:14-21
2	금	D-1)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십시오	마 26:36-41
3	토	D-2)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렘 17:12-14
4	주일	에서 vs 아굽	말 1:2-5
5	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롬 9:10-18
6	화	D-3) 축복된 재정을 위하여	눅 6:38 & 신 15:4-6
7	수	D-4) 미래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리기	사 51:7-8, 12-16
8	목	D-5)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막 7:24-30
9	금	D-6)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는 기도	왕하 6:14-17
10	토	D-7)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민 6:22-27
11	주일	사라 vs 하갈	창 16:1-16
12	월	약속의 자녀	갈 4:21-31
13	화	기억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신 16:9-17
14	수	정의를 힘써 따르라	신 16:18-22
15	목	흠 없는 제물, 흔들림 없는 순종	신 17:1-13
16	금	권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라	신 17:14-20
17	토	여호와와 그들의 기업이시라	신 18:1-8
18	주일	레아 vs 라헬	창 29:16-31
19	월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식	고전 1:26-31
20	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신 18:9-14
21	수	너희 가운데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신 18:15-22
22	목	도피성 규제	신 19:1-14
23	금	증인에 대한 규제	신 19:15-21
24	토	두려움과 낙심을 무너뜨리라	신 20:1-9
25	주일	사울 vs 다윗	대상 10:13-14 & 삼상 16:1, 7, 11-13
26	월	다윗의 신앙 고백	시 23:1-6
27	화	생명을 살리는 전쟁법	신 20:10-20
28	수	공동체의 책임을 회복하라	신 21:1-9
29	목	욕심이 아닌 존중으로 대하라	신 21:10-14
30	금	공정한 판단, 자비로운 마음	신 21:15-23
31	토	작은 일에서도 선을 택하라	신 22:1-12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 43:14-21

14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r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 “For your sake I will send to Babylon and bring down as fugitives all the Babylonians, in the ships in which they took pride.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I am the LORD, your Holy One, Israel’s Creator, your King.”

16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made a way through the sea, a path through the mighty waters,

17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앞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who drew out the chariots and horses, the army and reinforcements together, and they lay there, never to rise again, extinguished, snuffed out like a wick: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The wild animals honor me, the jackals and the owls, because I provide water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to give drink to my people, my chosen,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SAEROUN QT

02

금요일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십시오

마 26:36-41

2026
신년새벽기도회
D-1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겿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Then Jesus went with his disciples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he said to them, "Sit here while I go over there and pray."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He took Peter and the two sons of Zebedee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be sorrowful and troubled.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Then he said to them,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Going a little farther,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Couldn't you men keep watch with me for one hour?" he asked Peter.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SAEROUN QT

03

토요일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렘 17:12-14

2026
신년새벽기도회
D-2

12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 소이시며

A glorious throne, exalted from the beginning, is the place of our sanctuary.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LORD, you are the hope of Israel; all who forsake you will be put to shame. Those who turn away from you will be written in the dust because they have forsaken the LORD, the spring of living water.

14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Heal me, LORD, and I will be healed; save me and I will be saved, for you are the one I prais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롬 9:10-18

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Not only that, but Rebekah's children were conceived at the same time by our father Isaac.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Yet, before the twins were born or had done anything good or bad—in order that God's purpose in election might stand:

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not by works but by him who calls—she was told,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Just as it is written: "Jacob I loved, but Esau I hated."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What then shall we say? Is God unjust? Not at all!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For he says to Moses, "I will have mercy on whom I have mercy, and I will have compassion on whom I have compassion."

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It does not, therefore, depend on human desire or effort, but on God's mercy.

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For Scripture says to Pharaoh: "I raised you up for this very purpose, that I might display my power in you and that my name might be proclaimed in all the earth."

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Therefore God has mercy on whom he wants to have mercy, and he hardens whom he wants to harde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축복된 재정을 위하여

눅 6:38 & 신 15:4-6

2026
신년새벽기도회
D-3

[눅 6:38]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신 15:4-6]

4-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However, there need be no poor people among you, for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to possess as your inheritance, he will richly bless you, if only you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and are careful to follow all these commands I am giving you today.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 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For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as he has promised, and you will lend to many nations but will borrow from none. You will rule over many nations but none will rule over you.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미래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리기

사 51:7-8, 12-16

2026
신년새벽기도회
D-4

7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Hear me, you who know what is right, you people who have taken my instruction to heart: Do not fear the reproach of mere mortals or be terrified by their insults.

8 옷 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 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For the moth will eat them up like a garment; the worm will devour them like wool. But my righteousness will last forever, my salvation through all generations."

12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I, even I, am he who comforts you. Who are you that you fear mere mortals, human beings who are but grass,

13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that you forget the LORD your Maker, who stretches out the heavens and who lays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that you live in constant terror every day because of the wrath of the oppressor, who is bent on destruction? For where is the wrath of the oppressor?

14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The cowering prisoners will soon be set free; they will not die in their dungeon, nor will they lack bread.

15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For I am the LORD your God, who stirs up the sea so that its waves roar—the LORD Almighty is his name.

16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and covered you with the shadow of my hand—I who set the heavens in place, who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nd who say to Zion, 'You are my peopl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막 7:24-30

2026
신년새벽기도회
D-5

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Jesus left that place and went to the vicinity of Tyre.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yet he could not keep his presence secret.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 came and fell at his feet.

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The woman was a Greek, born in Syrian Phoenicia. She begged Jesus to drive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First let the children eat all they want," he told her,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 dogs."

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Lord," she replied,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Then he told her, "For such a reply, you may go;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She went home and found her child lying on the bed, and the demon gon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민 6:22-27

2026
신년새벽기도회
D-7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 LORD said to Moses,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Tell Aaron and his sons, ‘This is how you are to bless the Israelites. Say to them:

24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25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26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So they will put my name on the Israelites, and I will bless the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사라 vs 하갈

창 16:1-16

- 1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Now Sarai, Abram's wife, had borne him no children. But she had an Egyptian slave named Hagar;

-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so she said to Abram, "The LORD has kept me from having children. Go, sleep with my slave;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Abram agreed to what Sarai said.

-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So after Abram had been living in Canaan ten years, Sarai his wife took her Egyptian slave Hagar and gave her to her husband to be his wife.

-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He slept with Hagar, and she conceived. When she knew she was pregnant, she began to despise her mistress.

-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Then Sarai said to Abram, "You are responsible for the wrong I am suffering. I put my slave in your arms, and now that she knows she is pregnant, she despises me. May the LORD judge between you and me."

-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Your slave is in your hands," Abram said. "Do with her whatever you think best." Then Sarai mistreated Hagar; so she fled from her.

- 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agar near a spring in the desert; it was the spring that is beside the road to Shur.

-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And he said, "Hagar, slave of Sarai, where have you come from, and where are you going?" "I'm running away from my mistress Sarai," she answered.

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Then the angel of the LORD told her, "Go back to your mistress
and submit to her."

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The angel added, "I will increase your descendants so much that
they will be too numerous to count."

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
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The angel of the LORD also said to her: "You are now pregnant
and you will give birth to a son. You shall name him Ishmael, for
the LORD has heard of your misery."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
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He will be a wild donkey of a man; his hand will be against
everyone and everyone's hand against him, and he will live in
hostility toward all his brothers."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는고 함이라

She gave this name to the LORD who spoke to her: "You
are the God who sees me," for she said, "I have now seen
the One who sees me."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
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That is why the well was called Beer Lahai Roi; it is still
there, between Kadesh and Bered.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
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
더라

So Hagar bore Abram a son, and Abram gave the name
Ishmael to the son she had borne.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
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Abram was eighty-six years old when Hagar bore him
Ishmae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약속의 자녀

갈 4:21-31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Tell me, you who want to be under the law, are you not aware of what the law says?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For it is written that Abraham had two sons, one by the slave woman and the other by the free woman.

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His son by the slave woman was born according to the flesh, but his son by the free woman was born as the result of a divine promise.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These things are being taken figuratively: The women represent two covenants. One covenant is from Mount Sinai and bears children who are to be slaves: This is Hagar.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Now Hagar stands for Mount Sinai in Arabia and corresponds to the present city of Jerusalem, because she is in slavery with her children.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But the Jerusalem that is above is free, and she is our mother.

27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For it is written: "Be glad, barren woman, you who never bore a child; shout for joy and cry aloud, you who were never in labor; because more are the children of the desolate woman than of her who has a husband."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Now you, brothers and sisters, like Isaac, are children of promise.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At that time the son born according to the flesh persecuted the son born by the power of the Spirit. It is the same now.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But what does Scripture say? "Get rid of the slave woman and her son, for the slave woman's son will never share in the inheritance with the free woman's son."

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we are not children of the slave woman, but of the free woma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기억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신 16:9-17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1 "약속의 땅을 향한 도움의 근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 121:1-2)

9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Count off seven weeks from the time you begin to put the sickle to the standing grain.

10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Then celebrate the Festival of Weeks to the LORD your God by giving a freewill offering in proportion to the blessings the LORD your God has given you.

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And rejoice before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he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you, your sons and daughters, your male and female servants, the Levites in your towns, and the foreigners, the fatherless and the widows living among you.

12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and follow carefully these decrees.

13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Celebrate the Festival of Tabernacles for seven days after you have gathered the produce of your threshing floor and your winepress.

14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Be joyful at your festival—you, your sons and daughters, your male and female servants, and the Levites, the foreigners, the fatherless and the widows who live in your towns.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For seven days celebrate the festival to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the LORD will choose. For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r harvest and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16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Three times a year all your men must appear before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he will choose: at the Festival of Unleavened Bread, the Festival of Weeks and the Festival of Tabernacles. No one should appear before the LORD empty-handed:

17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Each of you must bring a gift in proportion to the way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여호와와가 그들의 기업이니라

신 18:1-8

- 1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와의 화제 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The Levitical priests—indeed, the whole tribe of Levi—are to have no allotment or inheritance with Israel. They shall live on the food offerings presented to the LORD, for that is their inheritance.

- 2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They shall have no inheritance among their fellow Israelites; the LORD is their inheritance, as he promised them.

- 3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This is the share due the priests from the people who sacrifice a bull or a sheep: the shoulder, the internal organs and the meat from the head.

- 4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You are to give them the firstfruits of your grain, new wine and olive oil, and the first wool from the shearing of your sheep,

- 5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for the LORD your God has chosen them and their descendants out of all your tribes to stand and minister in the LORD's name always.

- 6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If a Levite moves from one of your towns anywhere in Israel where he is living, and comes in all earnestness to the place the LORD will choose,

- 7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he may minister in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like all his fellow Levites who serve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 8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He is to share equally in their benefits, even though he has received money from the sale of family possession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레아 vs 라헬

창 29:16-31

16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Now Laban had two daughters; the name of the older was Leah, and the name of the younger was Rachel.

17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Leah had weak eyes, but Rachel had a lovely figure and was beautiful.

18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Jacob was in love with Rachel and said, "I'll work for you seven years in return for your younger daughter Rachel."

19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 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Laban said, "It's better that I give her to you than to some other man. Stay here with me."

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So Jacob served seven years to get Rachel, but they seemed like only a few days to him because of his love for her.

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Then Jacob said to Laban, "Give me my wife. My time is completed, and I want to make love to her."

22 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So Laban brought together all the people of the place and gave a feast.

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But when evening came, he took his daughter Leah and brought her to Jacob, and Jacob made love to her.

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And Laban gave his servant Zilpah to his daughter as her attendant.

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When morning came, there was Leah! So Jacob said to Laban, "What is this you have done to me? I served you for Rachel, didn't I? Why have you deceived me?"

26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Laban replied, "It is not our custom here to give the younger daughter in marriage before the older one.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식

고전 1:26-31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Brothers and sisters, think of what you were when you were called. Not many of you were wise by human standards; not many were influential; not many were of noble birth.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But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God chose the lowly things of this world and the despised things—and the things that are not—to nullify the things that are,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him.

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It is because of him that you are in Christ Jesus, who has become for us wisdom from God—that is, our righteousness, holiness and redemption.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Therefore, as it is written: "Let the one who boasts boast in the Lor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신 18:9-14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5 "약속 위에 더하시는 축복"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 1:11)

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When you enter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do
not learn to imitate the detestable ways of the nations there.

10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
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Let no one be found among you who sacrifices their son
or daughter in the fire, who practices divination or sorcery,
interprets omens, engages in witchcraft,

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or casts spells, or who is a medium or spiritist or who consults
the dead.

12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
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Anyone who does these things is detestable to the LORD;
because of these same detestable practices the LORD
your God will drive out those nations before you.

1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You must be blameless before the LORD your God.

14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
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
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The nations you will dispossess listen to those who
practice sorcery or divination. But as for you, the LORD
your God has not permitted you to do so.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너희 가운데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신 18:15-22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6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동행”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 145:18-19)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The LORD your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among you, from your fellow Israelites. You must listen to him.

16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For this is what you asked of the LORD your God at Horeb on the day of the assembly when you said, "Let us not hear the voice of the LORD our God nor see this great fire anymore, or we will die."

1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The LORD said to me: "What they say is good.

18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I will raise up for them a prophet like you from among their fellow Israelites, and I will put my words in his mouth. He will tell them everything I command him.

19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I myself will call to account anyone who does not listen to my words that the prophet speaks in my name.

20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But a prophet who presumes to speak in my name anything I have not commanded, or a prophet who speaks in the name of other gods, is to be put to death."

21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You may say to yourselves, "How can we know when a message has not been spoken by the LORD?"

22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If what a prophet proclaims in the name of the LORD does not take place or come true, that is a message the LORD has not spoken. That prophet has spoken presumptuously, so do not be alarm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증인에 대한 규례

신 19:15-21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8 "응답하시는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 4:1)

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One witness is not enough to convict anyone accused of any crime or offense they may have committed. A matter must be established by the testimony of two or three witnesses.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If a malicious witness takes the stand to accuse someone of a crime,

17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the two people involved in the dispute must stand in the presence of the LORD before the priests and the judges who are in office at the time.

18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The judges must make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if the witness proves to be a liar, giving false testimony against a fellow Israelite,

19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then do to the false witness as that witness intended to do to the other party. You must purge the evil from among you.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The rest of the people will hear of this and be afraid, and never again will such an evil thing be done among you.

21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Show no pity: life for life,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두려움과 낙심을 무너뜨리라

신 20:1-9

1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When you go to war against your enemies and see horses and chariots and an army greater than yours, do not be afraid of them, because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will be with you.

2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When you are about to go into battle, the priest shall come forward and address the army.

3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He shall say: "Hear, Israel: Today you are going into battle against your enemies. Do not be fainthearted or afraid; do not panic or be terrified by them.

4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For the LORD your God is the one who goes with you to fight for you against your enemies to give you victory."

5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The officers shall say to the army: "Has anyone built a new house and not yet begun to live in it? Let him go home, or he may die in battle and someone else may begin to live in it.

6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Has anyone planted a vineyard and not begun to enjoy it? Let him go home, or he may die in battle and someone else enjoy it.

7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Has anyone become pledged to a woman and not married her? Let him go home, or he may die in battle and someone else marry her."

8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Then the officers shall add, "Is anyone afraid or fainthearted? Let him go home so that his fellow soldiers will not become disheartened too."

9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When the officers have finished speaking to the army, they shall appoint commanders over i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사울 vs 다윗

대상 10:13-14 & 삼상 16:1, 7, 11-13

[대상 10:13-14]

- 13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Saul died because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he did not keep the word of the LORD and even consulted a medium for guidance,

- 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and did not inquire of the LORD. So the LORD put him to death and turned the kingdom over to David son of Jesse.

[삼상 16:1, 7, 11-13]

- 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The LORD said to Samuel, "How long will you mourn for Saul, since I have rejected him as king over Israel? Fill your horn with oil and be on your way; I am sending you to Jesse of Bethlehem. I have chosen one of his sons to be king."

-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But the LORD said to Samuel, "Do not consider his appearance or his height, for I have rejected him. The LORD does not look at the things people look at. People look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 11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So he asked Jesse, "Are these all the sons you have?" "There is still the youngest," Jesse answered. "He is tending the sheep." Samuel said, "Send for him; we will not sit down until he arrives."

- 12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밝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So he sent for him and had him brought in. He was glowing with health and had a fine appearance and handsome features. Then the LORD said, "Rise and anoint him; this is the one."

- 13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So Samuel took the horn of oil and anointed him in the presence of his brothers, and from that day o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powerfully upon David. Samuel then went to Ramah.

다윗의 신앙고백

시 23:1-6

1 여호와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
하시느도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도다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
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이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
르리니 내가 여호와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Surely your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공동체의 책임을 회복하라

신 21:1-9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If someone is found slain, lying in a field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to possess, and it is not known who the killer was,

2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your elders and judges shall go out and measure the distance from the body to the neighboring towns.

3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멩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Then the elders of the town nearest the body shall take a heifer that has never been worked and has never worn a yoke

4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and lead it down to a valley that has not been plowed or planted and where there is a flowing stream. There in the valley they are to break the heifer's neck.

5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The Levitical priests shall step forward, for the LORD your God has chosen them to minister and to pronounce blessings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o decide all cases of dispute and assault.

6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Then all the elders of the town nearest the body shall wash their hands over the heifer whose neck was broken in the valley,

7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and they shall declare: "Our hands did not shed this blood, nor did our eyes see it done.

8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Accept this atonement for your people Israel, whom you have redeemed, LORD, and do not hold your people guilty of the blood of an innocent person." Then the bloodshed will be atoned for,

9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한지니라

and you will have purged from yourselves the guilt of shedding innocent blood, since you have done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D-10 "우리의 힘 되시는 여호와"

여호와와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시 28:8)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2025-2026 송구영신예배

01

약속의 땅을 향하여 (신11:8-21)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설교 | 한 흥 목사

일시 | 12월 31일(수) 오후 6시, 8시 30분, 11시

장소 | 새로운교회 본당

2025-2026 송구영신예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신11:8-21)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 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 9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 10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 11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 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 14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 15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 16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 17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 18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 19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 20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 21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2026.
01

입교 및 세례자 간증

02

1. 심이삭 학생 (뉴젠 고등부)
2. 이화순 성도 (E강남공동체)
3. 김지훈A 성도 (N서초공동체)
4. 이승은 성도 (강북공동체)

저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심이삭 학생 (뉴젠 고등부)



저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제 곁에 있었고 제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들이 저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앙적인 전환점이 두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일곱 살 때, 가족과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밀려와 너무 아파서 큰 병원으로 급히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링거를 주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의 불안하고 다급한 외침이 귀에 들렸지만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로 생사의 기로에 있었고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 눈을 떴을 때,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끌어안고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새로운교회 목사님들이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깊은 변화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니고 있던 기독교에서 찾아왔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생이 되자, 저는 한 건물 안에서 자라온 선배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입학 첫날 12학년 선배가 화장실에서 저에게 전자담배를 권하는 것을 보고 제가 꿈꾸던 성숙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부르지 않고, 설교 시간에는 자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보이려 노력했지만, 사실 성적, 인정, 스포츠,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죄를 짓는 친구들을 판단하며 “나는 저들보다 나아”라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들과 다를 것 없는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방과

후에 진행되는 신앙 공동체 첫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제 안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너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미루고 살 것이냐? 대학 원서 제출하고 나서?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지금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간증 때 들은 말씀은 제 마음 한가운데를 강하게 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부끄러운 시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때부터 고등부 예배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고, 설교 한 마디 한 마디를 마음에 새기려 노력했습니다. 학교 찬양팀에 참여해 기타로 섬기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인

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은 더 이상 겉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실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작년의 변화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경과 기도, 그리고 신앙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저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삶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며,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굳게 붙드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사명자로 세우셨네요

이화순 성도 (E강남공동체)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모르는 집이었습니다. 불교와 미신이 혼합된 신앙이라 제사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먼저 하나님

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아들을 전도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던 저는 믿음이 생기고부터 숨통이 트이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남편한테 압박을 받은 자식들은 커서 남편을 멀리하고 거기서 외로움을 느끼는 남편을 보는 것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과거의 억울함과 분함을 저에게 토해내는 남편의 우울감과 어둠이 나를 잠식할 것 같아 오로지 탈출구는 예수님 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적인 열심을 같이 내기를 원하다 보니 주일성수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는 수단과의 영적 전쟁이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작년 가을 폐암초기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시련이 결과적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절대 교

회는 가지 않겠다던 남편이 이제 두려웠는지 전도축제, 부흥집회, 주일예배로 교회를 따라나섰습니다. 가끔은 투덜투덜 대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모습에 폐암이 마냥 밍지만은 않았습니다.

올여름 1년도 되지 않아 암이 온몸에 전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천국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말기암 가족에게겐 천국 소망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남편을 보내고 온 날, 며느리가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사명자로 세우셨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없는 세명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드려야지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아, 이 늙은이에게도 중요한 임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보낸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기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향하여 너무나 큰 사랑과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마음껏 예배자로 살지 못했는데 이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수요예배도 함께 가자고 해서 나간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붙잡을 게 예배 뿐입니다. 평평 울고

나면 저에게 덕지덕지 붙은 슬픔과 원망, 분노가 보혈로 씻겨지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준 필사책으로 매일 성경말씀을 쓰고 기도노트에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구체적으로 쓰며 기도하니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더 이상 저에게 무슨 살 소망이 있을까 싶었는데 하루하루의 기도가 쌓여 제 주변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오히려 제가 살아났습니다. 3년 전에 아들, 며느리가 전라도 광주에

서 서울을 오가며, 새로운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딱하고, 왜 저러나 걱정되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절절하게 구하며 장막을 옮긴 아들, 며느리의 갈급함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새로운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김지훈A 성도 (N서초공동체)



저희는 나름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임신 계획을 세웠고 기도도 임신을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여호수아

에서 가운데 두 글자를 따서 첫 아이의 이름은 호수 둘째 이름은 수아로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결단했던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장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고 생명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임신이 생각보다 쉽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와이프는 입덧이 심했지만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여행도 다녀오고 임신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19주 차 1차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첫 초음파는 좀 길었고 한번 초음파를 한 후 다시 초음파실로 들어가 두 번째 초음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뇌 중 일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다음 주 큰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란 막연한 생각과 정말로 아이가 아픈 거면 어찌지라는 불안감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만약 지금은

없더라도 일주일 사이에 기적적으로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침 얼마 전 새로운 초음파 기계가 들어왔다고 해서 좋은 화질로 세세하게 잘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안 보였던 구조물이 보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뇌 구조물 중 하나는 여전히 자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첫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슬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던 중 분명 아이를 우리 가정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 사이에 기적을 더 바랬었습니다. 또한 주제가니 만큼 저의 감정이 많이 들어간 것일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웠으면서도 한편으로 그 마음이 분명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속 조용히 기도해 기도해 더했습니다.

유산 4개월 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지만 또 아프면 어찌지 라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담대해지기로 마음먹어도 담대함은 며칠 못 갔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갖고 어떻게 10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 아이가 건강히 뽕 나타나주면

좋을 텐데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도 건강히 태어났습니다. 이번 분만실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10개월은 엄마 뱃속에서 한 생명이 온전히 만들어지는 시간이면서도 저희 가정이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 훈련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매 걸진 때마다 같은 질문을 하고 또 하고 사진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고 특히 뇌 부분을 잘 봐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저희가 아이의 건강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배에 손을 얹으면 아이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외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걱정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도 끊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뱃속에 있는데 제 걱정은 이미 아이 초등학교 입학, 사춘기 시절까지 이르렀습니다.

제 기도가 아무리 세세하게 아이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아주 길게 기도한다 해도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복잡함, 정확도 그리고 섬세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감히 알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갖고 계신 선하시고 완전한 그 계획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 뱃속에서 한 생명을 만들고 계시면서 동시에 저희 가정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유산과 출산을 겪으며 저희의 작음과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소망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저희 아이의 이름은 수호입니다. 첫 아이 이름이었던 호수를 기억할 수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간증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

이승은 성도 (강북공동체)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엄마에게 혼날까 봐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할 줄을 몰라 식기도 외엔 할 말이 없었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종교활동에 불과했습니다.

유학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는데,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 모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끝날 즈음 한 친구가 한인교회에 한 번 나가보라고 했고, 오랜만에 한국 밥이나 먹으러 가자는 가벼운 마음에 참석한 예배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처럼 큰 날개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예배 첫 시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모습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라는 첫 소절을 듣자마자 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지며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배 내내 뒷좌석에서 울던 저를 보셨는지 예배 직후 목사님께서 잘 왔다고 등을 토닥여 주시는데 꼭 하나님께서 안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후에도 저의 신앙생활은 좋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취업도 빨리 되었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으며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 감에 따라 저도 모르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음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제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마음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 차례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저의 교만이 깨진 것은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하게 될 때였습니다.

병원을 가도 딱히 문제가 없다는데 제가 계획한 시기에 임신이 되지 않자 초조해졌고 불안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 넘게 아이를 기다려오던 저희 부부에게 2024년 신년 특새 기간 중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 하임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 주셨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만족해 오던 남편에게 특새 예배 중 히브리서 11장 1장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셨고, 아직 임신도 하기 전이었지만 남편은 기도 중 앞으로 아이를 양육할 본인의 모습이 그려져 그 기쁨에 감사와 찬양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수년간 임신을 위해 기도했

지만 겨자씨 만한 믿음조차 없이 기도한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간 임신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부부를 넘어 신앙적인 부모로 저희를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임이를 양육하며 성경 말씀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려지며 하나님께서 자녀 된 우리를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임이가 잠자는 모습만 봐도 감격의 눈물이 나고 울어도 웃어도 그저 사랑스럽기만 해 천국이 과연 이런 곳일까 싶은 생각이 들곤 했는데, 문득 하나님이 나를 지난 35년간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기도를 해야만, 뭘 해야만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존재만으로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졌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더 이상 머리가 아닌 영혼육, 온 몸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임이의 유아세례 예식을 준비하며 앞으로 양육의 모든 중심과 비밀은 구원에 있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 부부가 작년 특새 때 선포하게 하신 그 '믿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 이전에 부부 된 저와 남편이 먼저 선물로 받은 구원을 매일매일 누려야만, 이 비밀의 경륜을 하임이에게도 물려줄 수 있겠구나 깨닫습니다.

워킹대디, 워킹맘으로 하임이를 양육하면서 워라벨, 워육벨의 우선순위에만 급급하고, AI시대에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으며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하임이가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삶을 통해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하는 부모의 역할과 사명을 평생 이어가겠습니다.



2026.
01

구도자 커피브레이크 간증

03

1. 박승혜 청년 (청년2부)
2. 신지선A 성도 (새가족)
3. 김지은M 성도 (W강남공동체)



감사의 제단을 쌓는 자

박승혜 청년 (청년2부)



커피브레이크에서 노아의 홍수와 아브라함의 등장까지 말씀을 한 구절씩 천천히 읽고 나누며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의

제단에 대해 특히 집중이 되었고 은혜 이후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의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에도 거하지 아니하셨는데 동물을 태우는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받으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의 제단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신실하시고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죄가 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는 사랑에 우리는 예배의 제단 앞에서 주의 사랑에 화답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께 예배를 드려야 함을 봅니다.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아브람을 택하여 주의 뜻을 이룰 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람은 여호와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도 모른 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람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셨고 아브람은 노아와 같이 받은 축복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길을 떠난 아브람이 얼마나 예뻐 보이셨으면 직접 나타나셨을까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며 그 길을 간 아브람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아브라함처럼 저도 제 삶을 전적으로 주께 맡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일은 아니지만 작은 선택과 결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생각하면서 기도로 묻고 말씀 안에서 뜻을 주시는 것에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했을 때 이루어짐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감사의 제단을 쌓는 자로 살 것입니다.

커피브레이크에서 주어진 질문들에 대해 말씀을 찾아 읽고 대화하면서 제가 생각지 못한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무엇 하나 성경에 그냥 기록하신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조원들의 삶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부르고 더 의지하겠습니다

신지선A 성도 (새가족)



성경공부 모임을 앞두고 두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에만 집중하는 모임일까라는 걱정과 창세기인데 과학적인 시각이나 그 밖

의 다양한 질문이 허용되는 분위기일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커피브레이크 모임 첫날, 그러한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6: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이 내용에서 저희 조에 한 분이 “달팽이는 어떻게 해요? 자동동체인데” “플라나리아는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원 분들은 신선한 질문에 재미있어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반갑고 기뻐고 두 번째 걱정에 대한 불안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찾아보니 달팽이는 자동동체이지만 혼자서는 번식을 못하고 한 쌍이 짝짓기를 해야 번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는 1시간 동안 말씀만 붙잡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장님은 한 절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을 던지셨고, 그러한 질문과 답변들을 통해 놓칠 수 있었던 것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깊이 말씀을 붙잡고 공부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겸손

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러닝을 좋아하는 제가 ‘러닝을 더 멀리, 빨리 잘하는 분’을 만난 것처럼 제가 성경모임에서 기대하던 방향성인데 더 깊이가 있어서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노아가 선택받은 사람이라서 삶이 좋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택받음의 무거움과 선택받음으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노력과 인내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탑을 쌓아 무치고 흩어지지 않으려 힘을 과신하려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기 관리와 능력에 더 집중하며 나를 강하게 만드는데 관심을 쏟는 나와 많은 현대인의 모습이 그들을 통해 보였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축복을 받은 믿음이 깊은 아브람이 주님의 부르심만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도 주님을 부르는 것을 보며 저렇게 믿음이 강한 아브람도 주님을 부르는데 나도 더 자주 주님을 부르고 의지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중한 커피브레이크 자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김지은M 성도 (W강남공동체)



교회를 다니면서 커피브레이크는 많이 들어왔지만 정작 해 볼 마음은 갖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커피브레이크는 순원 분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고 3살, 5살 남자아이 두 명을 키우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던 저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해보았기에 솔직히 별 기대없이 그저 은혜의 자리에 나가만 있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통해 본 창세기는 또 다르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또 모태신앙으로 수없이 창세기를 읽어온 제 나눔 또한 조원분들에겐 다른 은혜로 다가감을 보았습니다. 처음 참여한 날부터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서 눈물을 흘릴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아의 방주를 나눌 때에는 심판으로만 생각했던 그 구절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조원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보고 저 역시 지금까지 얼마나 안일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주일 예배 한번도 잘 지키지 못하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커피를 하면서 '하나님께 좀 혼나서 정신 차리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 이번 커피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그저 '사랑'이었습니다. 가는 날마다 말씀은 달랐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커피브레이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6 신년새벽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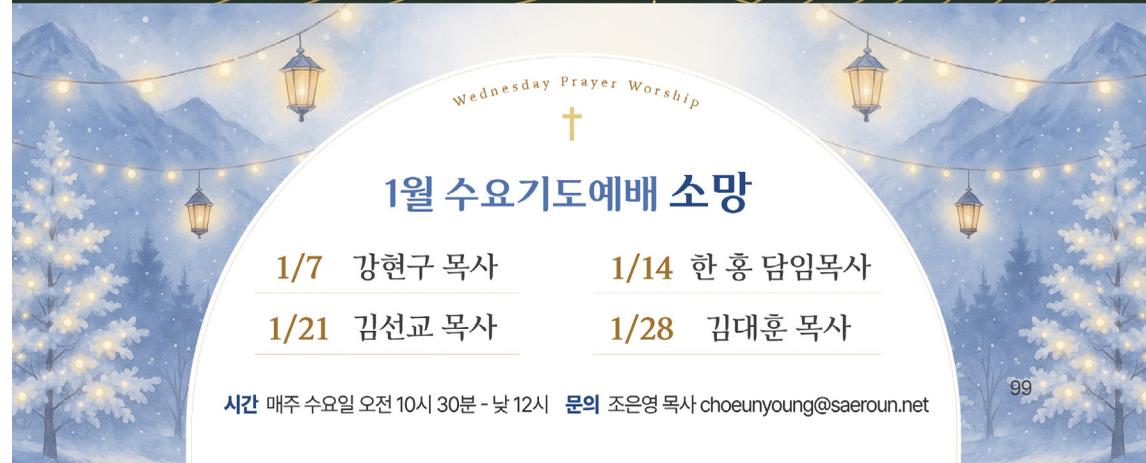


약속의 땅을 향하여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2026. 1. 2(금)-10(토) 오전 6시
새로운교회 본당

문의: 이사무엘 목사, 카톡ID: saerounchurch



Wednesday Prayer Worship



1월 수요일기도예배 소망

1/7 강현구 목사

1/14 한 흥 담임목사

1/21 김선교 목사

1/28 김대훈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
